

기사입력: 09.16.08 15:17

인쇄하기

### 메릴랜드 128만불 저택 단돈 50불 경품에



‘6000스퀘어피트, 방 6개에 4.5개의 화장실, 식가로만 128만달러인 대저택을 단돈 50달러에 소유할수 있다.’ 어쩌면 꿈속에서나 가능할수 있는 이같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 거주하는 탐 월터씨 부부.

이들 부부는 최근 에지워터에 있는 128만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대저택을 마약 남용 및 알콜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 ‘위 케어 앤 프렌즈(We Care and Friends)’에 50달러에 내놓았다. 위 케어 앤 프렌즈가 기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저택을 경품으로 내걸도록 한 것이다.

월터스 부부는 대저택을 경품추첨 비용 50달러에 기부하면서, 총 판매 금액의 10%를 이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경품 추첨행사를 통해 최소한 15만달러를 기부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 돈이면 풀 타임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비롯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향후 몇년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터스 부부가 ‘위 케어 앤 프렌즈’에 자신의 집을 기부하게 된 동기는 올 초 이 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지난 91년 마약 및 알콜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한 이 단체는 지난해에만 총 100여명의 재활을 도왔다.

그러나 쥐꼬리만한 예산이 금방 바닥나고, 시정부에서도 얼마간의 그랜트를 보조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월터스 부부는 “그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지켜봤다”면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경품 추첨 행사는 오는 9월 27일(토)에 열린다. 50달러짜리 경품 티켓은 지금까지 2000장이 팔렸다. 그러나 월터스 부부는 최대한 3만1000장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경품에 추첨된 사람은 담보나 모기지 비용을 비롯 다른 추가비용 없이 이 저택을 소유할 수 있다. 티켓은 [www.fiftydollarhouse.com](http://www.fiftydollarhouse.com)이나 전화 443-758-5164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허태준 기자

---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INS**AMERICA